

여수세계박람회 D-10

이것만은 꼭 보완하자

## 노약자·어린이에 우선예약 혜택을

첨단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여수세계박람회(12월~8월 12일·이하 박람회)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바다 위 전시관인 주제관, 해상 문화·공연시설 빅오(Big-O), 오토도까지 이어지는 박람회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개막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박람회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 방법 모르고 정보 없어 관람 불이익

#### ▶ 예약제 개선

박람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전시관 예약 전장'이 벌어지고 있다. 전시관별로 관람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있어 사전에 전시관을 예약해야 하지만, 예약 방법을 모르거나 정보가 없는 관람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2면〉

이 때문에 어린이·노약자·장애인·외국인 등 전시관 예약에서 뒤쳐질 수 있는 관람객을 위해 우선 예약 해

백을 주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박람회는 4개의 특화시설인 빅오,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스카이다워, 아쿠아리움과 73개의 참여전시관(주최국전시관·참여전시관 등), 3개 체험시설(에너지파크·원양어업체험장·연안어업체험장)로 이뤄졌다.

하지만 전시 공간이 한정돼 있어 전시관별 하루 관람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개막전 원활한 관람객 동선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한개의 전시

관도 감상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가 계획하고 있는 전시 기간 관람객 하루 수용 한계치는 전시관별로 ▲주제관(관람시간 35분·동시 수용인원 690명) 2만3200명 ▲한국관(15분·500명) 1만4500명 ▲기후환경관(27분·120명) 7000명 ▲해양산업기술관(20·270명) 7700명 ▲해양문화도시관(26분·80명) 7100명 ▲해양생물관(20분·200명) 7000명 ▲아쿠아리움(90분·3000명) 1만9000명 ▲대우조선해양로봇관(112분·500명) 3200명이다.

이들 8개 전시관은 100%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고, 예약은 1인당 2개관으로 제한돼 있다. 또 일본·태국 등 국가관과 현대차그룹관 등 기업관도 무료 입장권을 관람 당일 미리 배포한 뒤 관람객을 입장시킨다.

만약, 주제관 등 8개 전시관 예약을 못했고, 국가관·기업관의 무료 입장권도 받지 못한다면 이들 전시관은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박람회장에 설치된 예약 기계인 미디어 키오스크를 통해 예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전에 정보가 없는 사람은 더욱 불리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3만7000여명이 참여했던 여행연습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 아쿠아리움과 대우조선해양로봇관 등 인기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폭주해 길게는 4시간 이상 줄을 서야했고,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이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해양로봇관의 경우 사전 예약분 중 10~20%가량을 어린이에게 우선 제공하고, 볼거리가 많은 아쿠아리움 등의 전시관은 노약자·장애인에게 10~20%가량 우선 예약 혜택을 주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또 청소년 단체 관람객을 위해서도 주제관 등 교육적인 측면이 큰 전시관을 우선 관람시키고, 외국인을 위해 한국관 등을 먼저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시관 예약 도우미를 배치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게 우선 예약 혜택을 주는 방안은 개막 전까지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로봇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의문의 26억 상품권 3대 의혹

## ① 막대한 자금 마련 어떻게?

## ② 상품권 현금화·사용처 어디

## ③ 박광태 전시장 과연 몰랐나

광주시가 지난 2004~2010년까지 7년간 광주 현대백화점에서 법인카드를 구매한 26억원 상당의 상품권(광주일보 1일자 1면)의 상당부분이 현금화돼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시장은 물론 각 실·국·과에 배정된 업무 및 시책 추진비까지 상품권 구입 대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상품권 구입 대금부터 사용처까지 모두 배일에 걸쳐져 있는 셈이다.

◇구입 대금 어떻게 마련했나=공공기관인 광주시가 상품권 구입 대금 26억82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매년 상품권 구입액은 5000만원 안팎이었던데다 각 실·국·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8년 당시 박광태 광

주시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2003~2007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현대백화점이 대금 지급을 요구한 5억8200만원 외에 21억원에 대한 집행 내역은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공개는 거부했다.

◇상품권 어디에 썼나=상품권을 구매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는 대부분 시책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격려용으로 전달했으며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구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이씨의 형은 이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10만원짜리 상품권만 구매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이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2015 광주U대회 재유치에 나

섰던 2008년 이후, 즉 시장의 외부 활동이 잦아진 시점에 상품권 구매 대금이 6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문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자금은 이씨만이 처리할 수 있었으며, 상품권 중 일부는 현금을 확보하는데 쓰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태 전 시장이 지시했나=상품권 구매 및 처리가 극비리에 이뤄졌고, 이씨 등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또 다른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이 보관하고 있는 의상장부에 이씨의 형 이외에 다른 사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액수가 매년 수억원씩에 달하는 만큼 박 전 시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그 측근들이 자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을 개연성도 높다.

또 이씨의 형 이외에도 이씨의 형수가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주시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된 배경에도 의혹이 풀리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월 여는 봄 운동회

5월의 첫날은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시작됐다. 1일 화순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친구보다 앞서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려나가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귀엽기만 하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입 농축산물 국산둔갑 판매

### 음식점·급식업체 38곳 적발

#### 전남 농산물품질관리원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대형 음식점과 급식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명수)은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대형(300㎡

이상) 음식점과 급식업체 1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38개소(거짓표시 15건·미표시 23건)를 적발했다.

전남지원은 적발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소재 급식업체인 E업체 등 15개소를 형사 입건해 수사중이며, 원산지

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에는 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업체는 공단내 86개 입주업체 직원 300명에게 위탁급식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수입산 쌀·배추김치 12t(시가 9600만원)을 납품받아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S푸드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살·앞다리)와 칠레산 돼지 등뼈 11t(시가 7100만원)을 구입해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강원 직항노선 14년만에 부활

### 4일부터 광주~양양 주 3회 운항

광주~양양 간 직항노선이 오는 4일부터 운영된다. 광주~강릉 노선이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광주와 강원권을 잇는 직항노선이 부활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4일부터 광주공항~양양공항 간 직항 왕복노선이 주 3회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노선에는 (주)코리아 이스프레스 에어(KEA)에서 18인승 Beechcraft 1900D기종(사진)을 투입한다.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3시10분 광주 출발, 오후 1시 양양 출발의 일정으로 주 3회 광주~양양을 왕복 운항한다. 편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요금은 9만5000원이다.



광주~양양노선의 운항이 시작됨에 따라 양 지역간 관광, 비즈니스, 고향방문 등을 통한 교류확대는 물론 공항 및 지역문화·관광자원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운항하던 광주~강릉 노선은 연간 5만9628명이 이용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2. 4. 25|수~5. 24|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공원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2. 5. 14(월)~5. 17(목)

주최: 광주일보사  
협찬: SAMSUNG 삼성생명 K wa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 | 062.220.0541